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2승 고지’... 강속구 대결

오늘 잠실벌 KS 3차전... SK 레이번·두산 이혜천 선발 격돌



〈레이번〉

한국시리즈 1·2차전에서 1승1패로 ‘장군평균’을 주고 받는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가 레이번과 이혜천을 내세워 2승 사냥에 나선다.
 1차전에서 에이스 김광현을 내고도 2·5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한 SK는 외국인 투수 레이번을 선발로 낙점했다. 레이번은 지난해 17승3패 3.26의 평균자책점으로 SK 마운드를 호령했지만 올 시즌은 전체 26경기에 등판해 5승3패, 3.3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결국 지난해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자리를 꿰찼던 레이번은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는 김광현과 채병용에게 원투편치자리를 내주고 3차전 선발로 나선다.
 레이번은 한국시리즈 첫 승을 통한 명예회복을 노린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1차전과 5차전 선발로 등판했던 레이번은 12이닝 동안 2실점하며 1.50의 평균자책점으로 호투했지만 1패만 떠안았다.
 올 시즌 레이번은 두산을 상대로 3경기에서 1패만을 안으며 3.75의 평균자책점으로 무난한 경기를 펼쳤다. 7차례 승부에서 5개의 안타를 때려낸 천적 김현수가 한국시리즈에서 0.111의 타율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레이번에게 희소식이다.
 두산은 포스트 시즌에서 에이스를 자처하고 있는 이혜천을 투입, 2차전 2·5의 패배를 만회한다는 계획이다. 제구력 난조로 고전하던 ‘좌완’ 이혜천은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안정적인 컨트롤로 자신의 특기인 강속구에 힘을 싣고 있다.
 이혜천은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선발 김선우가 2이닝만에 4실점으로 무너졌을 때, 급히 마운드에 올라 2와 3분의 이닝을 안타하나로 막아내며 8·4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23일 플레이오프 6차전에서는 ‘빛속의 역투’로 4와 3분의 2이닝 동안 6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삼성 타선을 2실점으로 막으며 5·2로 두산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혜천은 올 시즌 SK와의 5경기에서 3.77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1패를 챙기며 0.218의 피안타율을 호투했다. 올 시즌 6타수 4안타(1홈런)로 이혜천을 괴롭혔던 최정이가 한국시리즈에서 8타수 1안타(0.125)로 고전하고 있는 것도 반갑다. 하지만 제구력 난조가 가을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이혜천의 발목을 잡는다.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9개의 사사구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제구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승을 위해 유리한 고지 점령을 향한 두 팀의 치열한 접전은 레이번과 이혜천의 어깨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게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혜천〉

서울 “너 잘 만났다” 수원

프로축구 K-리그 1위 놓고 오늘 밤 ‘맞짱’

‘어렵게 얻은 1위 자리, 절대 빼앗길 수 없다.’(FC 서울) ‘본래 내 자리, 다시 찾아가겠다.’(수원 삼성) 프로축구 K-리그 최대 라이벌 FC 서울과 수원 삼성이 1위 자리를 놓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서울과 수원은 29일 오후 7시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삼성하우젠 2008 K-리그 24라운드에서 맞붙는다. 두 팀 간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이다. 시즌 막바지에 상사된 맞대결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두 팀이 치열하게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23라운드까지 치른 결과 서울이 13승9무1패 승점 48, 수원도 15승3무5패 승점 48로 동률이지만 골 득실(서울 +19, 수원 +18)에서 1, 2위가 갈려 있다. 이긴 팀이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비기면 6위인 천 유나이트(승점 32)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3위 성남 일화(14승5무4패 승점 47)에 1위를 넘겨줄 수 있다.
 역대 전적은 수원이 21승13무16패로 앞서 있지만 이번 대결의 결과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지난 시즌부터 수원이 5연패를 당하던 서울은 지난 7월 컵대회 원정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수원원 연패 사슬을 끊었다. 더구나 서울은 4월13일

수원에 0·2로 패한 이후 정규리그에서 18경기 무패(10승8무)로 최고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축구팬들은 양팀의 맞대결을 ‘지치대더비’, ‘국도 1호선 더비’ 등으로 이름 붙였다. 평일인 데다 날씨까지 쌀쌀해질지 모르니 ‘빅매치’에 얼마나 많은 관중이 몰릴지도 관심거리다. 1위 싸움 만큼이나 뜨거운 6강 플레이오프 막자 티켓 다 품도 불만이다. 어느 팀이라도 빼앗아 6강행 희망은 날아갈 수 있어 더욱 박진감이 넘친다.
 6팀이 경쟁 중인 6위 경쟁에서 7위 경남 FC(승점 29)가 9위 전남 드래곤즈(승점 28)와 맞붙고, 11위 대구 FC(승점 25)는 8위 전북 현대(승점 28)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10위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27)도 부산 아이파크와 원정에서 승점 쟁기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K-리그 24라운드 일정(29일)
 대전-포항(대전월드컵) 성남-인천(탄천종합·이상 19시) 경남-전남(창원종합) 대구-전북(대구스타디움) 수원-서울(수원월드컵·이상 19시30분) 부산-제주(부산아시아드) 광주-울산(광주월드컵·이상 20시)

‘지성·주영’ 2호골 동반 사냥

30일 선발 출격 대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프랑스 리그1에서 뛰고 있는 박주영(23·AS모나코)이 동반 골 사냥에 나선다.
 박지성은 30일 오전 5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릴 2008-2009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웨스트햄과 홈 경기에서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출격 가능성은 이번에도 큰 편이다. 박지성은 지난 25일 열린 에버턴과 8라운드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해 67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체력을 가다듬고 컨디션도 충분히 조율했다.
 박지성으로서는 2호 골에 욕심을 낼 시점도 됐다. 오인 하그리브스와 마이클 캐리, 폴 스콜스 등 맨유 미드필더진이 대거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박지성은 지난달 21일 첼시와 4라운드 원정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리고 나서 한 달이 넘도록 골을 넣지 못했다. 박지성이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굳히고 선발을 꿰차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득점 포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무대에 안착한 박주영은 같은



〈박지성〉 〈박주영〉

날 오전 3시 AS남자와 11라운드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박주영은 이번에도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하지만 박주영은 지난달 14일 로리앙과 5라운드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골의 데뷔전을 치른 이후 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모나코 역시 정규리그 5경기 연속(2무3패) 무승 행진을 이어가는 부진을 겪고 있다. 박주영의 한 방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독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표(31·도르트문트)도 같은 날 오전 FC빌렌과 원정 경기를 통해 7경기 연속 골타임에 도전한다. 반면 설기현(28·풀럼)은 위건 애슬레틱과 홈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1군 경기에서 잇따라 결정하고 있는 만큼 출전 여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M·V·P 어깨냐, 방망이나

KBO 프로야구 올시즌 최우수 선수 후보 5명 발표

한국시리즈 우승과 2008시즌 MVP 두 마리 토끼를 쫓는 ‘88동아’ 김광현(SK)과 김현수(두산)의 대결에 가을잔치의 흥미가 더해지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9일 올 시즌 최우수선수(MVP) 후보 5명을 발표했다. 평단에는 투수 2관왕 김광현(SK), 타격 3관왕 김현수(두산), 타점왕 카피 가리시아(롯데), 홈런왕 김태균(한화), 평균자책점 1위 윤석민(KIA)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가을 잔치’ 우승컵을 두고 힘겨투기를 하고 있는 김광현과 김현수의 대결구도다.
 1988년생 동갑내기 김광현과 김현수는 SK와 두산의 핵심 전력으로 한국시리즈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프로 2년차 김광현은 올시즌 16승을 챙기

며 다승 1위를 거머쥐었고, 15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 ‘원조 괴물’ 류현진(한화)의 3년 연속 탈삼진왕을 저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그러나 시즌 마지막 날까지 각축을 벌이던 평균자책점 부문에서는 0.06차이로 윤석민(2.33)에게 1위를 내주며 투수 3관왕의 영예를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김현수는 2006년 두산 신고선수로 유니폼을 입은 후 올 시즌 타율 0.357과 홈런 0.454, 안타 168개로 타격 부문 3개 부문을 독식하며 정교한 타격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홈런과 타점 등 파괴력에서는 무기가 떨어진다. 평가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함차했던 김광현과 김현수는 팀 정규리그 1·2위의 일등공신으로 한국시리즈에서는 맞수로 만난다.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한국시리즈 우

승컵은 물론 MVP 주인공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는 만큼 두 선수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나왔던 김광현은 5와 3분의 2이닝동안 5개의 안타와 6개의 사사구로 3실점(2자책)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김현수는 1·2차전에서 9타수 1안타로 타율이 0.111에 머물고 있고, 삼진은 무려 6개를 당했다.
 한편 이날 KBO는 데뷔 첫 해 주전 유격수를 꿰찬 KIA 김선진, 삼성 타선을 이끈 데뷔 7년차 중고신인 최형우와 함께 롯데 손광민, 한화 유원상 그리고 히어로즈 강정호 등 5명을 신인왕 후보로 발표했다.
 프로야구 출간기자단의 투표로 결정되는 MVP 및 신인왕은 내달 6일 그 주인공이 결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2008 시즌 MVP 후보

투수	김광현(SK)	윤석민(KIA)	김현수(두산)	타자	가리시아(롯데)	김태균(한화)
다승 1위(16승)	탈삼진 1위(150개)	평균자책점 2위(2.39)	승률 2위(0.800)	평균자책점 1위(2.33)	다승 공동 2위(14승)	승률 5위(0.737)
탈삼진 2위(119개)	타격 1위(0.357)	최다안타 1위(168개)	홈런 1위(0.454)	득점 4위(83점)	타점 1위(111점)	출타율 1위(0.541)
최다안타 1위(168개)	출타율 1위(0.454)	득점 4위(83점)	타점 1위(111점)	출타율 1위(0.541)	최다안타 공동 10위(130개)	출타율 1위(0.541)
출타율 1위(0.454)	타점 1위(111점)	출타율 1위(0.541)	최다안타 공동 10위(130개)	출타율 1위(0.541)	장타율 1위(0.622)	타점 4위(90개)
장타율 1위(0.622)	타점 4위(90개)	타점 4위(90개)	타점 4위(90개)	타점 4위(90개)	타점 4위(90개)	타점 4위(90개)

신인왕 후보

투수	유원상(한화)	최형우(삼성)	타자	손광민(롯데)	김선진(KIA)	강정호(히어로즈)
5승 4패	평균자책점 4.66	출타율 공동 5위(197개)	장타율 7위(0.487)	타점 26위(0.276)	규정타석 미달	규정타석 미달
출타율 공동 5위(197개)	장타율 7위(0.487)	타점 26위(0.276)	규정타석 미달	규정타석 미달	타점 27위(0.271)	타점 27위(0.271)
장타율 7위(0.487)	타점 26위(0.276)	규정타석 미달	규정타석 미달	타점 27위(0.271)	타점 27위(0.271)	타점 27위(0.271)
규정타석 미달	규정타석 미달	타점 27위(0.271)	타점 27위(0.271)	타점 27위(0.271)	타점 27위(0.271)	타점 27위(0.271)

美 월드컵 사상 첫 서스펜디드

필라델피아 - 탬파베이 5차전 6회 폭우로 연기... 오늘 재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컵 시리즈 5차전이 우천으로 서스펜디드(일시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승부의 향방은 29일(한국시간)로 연기됐다.
 월드컵 시리즈 경기가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서스펜디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메이저

리그 역사상 처음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8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 파크에서 계속된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탬파베이 레이스간 월드컵 시리즈 5차전에서 2·2로 맞서던 6회말 필라델피아의 공격을 앞두고 빗줄기가 강해져 경기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 시리즈 5차전은 29일 같은 장소에서 필라델피아의 6회말 공격부터 재개된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 개최

내달 1~5일, 광주 본양구장

KIA 타이거즈가 개최하는 ‘제 5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광주 시 광산구 본양리본양구장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야구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광주야구협회와 주관하며, 15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우승컵을 놓고 다투게 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 우승팀에게는 우승기와 우승 트로피, 기념메달, 야구용품과 주고 준우승과 3위 2개 팀에게는 트로피와 기념메달, 야구용품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참가하는 모든 팀에게 각각 볼 10타와 알루미늄배트, 포수장비 1세트 등 기념품을 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맨유 호날두 또 올해의 선수

국제프로축구선수협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특급 왕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3·사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지난 2007-2008시즌 최고의 활약을 앞세워 국제프로축구선수협을 휩쓸었다.
 AP통신은 28일(한국시간) 호날두가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로부터 2008년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호날두는 유럽축구연맹(UFA) 올해의 선수 및 최고 공격수와 영국축구선수협회(PFA) 최우수선수, 유럽파인 골든부츠에 이어 네 번째 최고



의 선수상을 받았다.
 호날두는 스트라이커가 아닌 윙어임에도 현란한 드리블과 대포알 슈팅을 앞세워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8골과 프리미어리그 31골, FA컵 3골을 합쳐 무려 42골을 몰아쳤다. 축구 부문 개인상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발롱도르(Ballon d'or) 후보 30명에 올라 있는 호날두는 12월 발표될 발롱도르와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을 자신하고 있다.